



▷ 불교언론인회는 정대스님에게 종단안정과 불교언론발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포교사 양성·사찰재정 공개 요구

불교언론인회 정대스님 초청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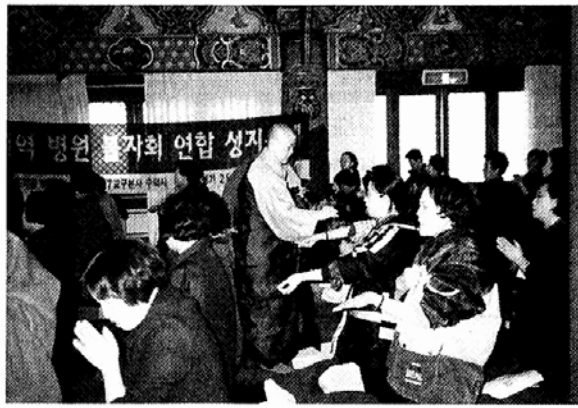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공식)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초청 조찬간담회를 21일 프레젠테에서 개최했다. 이날 불교언론인회는 정대스님에게 종단안정과 불교언론발전에 대한 공로의 뜻을 기리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언론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간담회에서는 포교 인력 배출, 외국어 인력 육성, 사찰재정 공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직장불자회를 전담해 고정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스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원택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은 절 살림 포교를 위해 여류방학 때 티벳 등을 방문해 불교수련은 물론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정대스님은 불교언론육성에 대한 질문에 불교TV 불교방송 불교신문이 하나의 운영체제로 통합되어야 힘을 가진다고 통합을 제안했다. 현재는 운영주체가 달라 거의 현실성이 없는 듯 보이지만 합치는 것이 불교언론이 힘을 얻고 살아갈 방법이라는 것이다.

서울 병원불자聯 든다

19일 수덕사서 합동수계 준비위 발족... 곧 실무모임



▷ 수계법회에 참석한 회원들 가운데 조발심사들은 수계를 받고 더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지역 병원불자들의 연합 모임이 결성된다. 국립서울정신병원 등 7개 병원불자회는 19일 수덕사(주지 법장스님)에서 가진 연합 수계법회에서 서울지역 병원불자연합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준비위원회는 각 병원 불자회 회장을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임원진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해 연합회 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지역 병원불자연합회가 결성되면 차후 전국 병원불자연합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병원불자연합회 준비모임을 가져 온 불자들은 그동안 전국모임을 추진해 왔으나 지지부진하자 우선 서울지역 병원불자연합회 먼저 발족시키기로 했다.

서울지역 병원불자연합회를 모태로 병원불자연합회가 창립되면 각 병원불자회간 정보 교류 및 친목도모를 통해 체계적인 신행활동과 환자포교 방안 모색을 위한 창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합회 준비위원회는 각 병원불자회에 대한 교섭 뿐만 아니라 연합회 구성에 대한 당위성과 필

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연합회의 실천적 역할과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결성될 연합회는 각회간의 친목은 물론 침체된 병원불자회에는 힘을 보태고 모범 불자회에서는 그 노하우를 전수받을 등 각 불자회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정출하고 배우는 연합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수련회를 가진 이후 두번째 연합법회로 봉행된 이날 수계법회에는 서울국립정신병원(회장 김주호) 국립의료원(회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이 주 원 <경블련 아침을 여는집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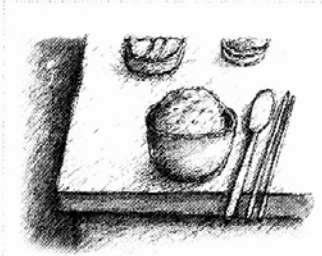
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이 무엇이나냐는 질문을 읽어도 봤고, 들어도 봤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 막막한 질문이더군요. 물론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은 삶을 영위할 것일까라는 질문 앞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쁜 이 세상에서 삶의 질을 따지는 것이 참으로 쓸모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명들은 관계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관계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아무래도 '자기생각'에 너무 빠져서, '자기'라는 존재에 너무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닐런지요. 그 누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생명으로서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못한다고...

우리는 삶이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걸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걸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걸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걸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걸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걸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걸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걸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걸고 있습니다.

실직노숙자 그 거리의 보살들도 '우주'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각하지 못한 '우주'를 지닌 그들만의 삶이 어떤지 상상해 보세요. 밥상 위에 숟가락 수가 바뀌지요. 오늘도 새로 오는 가족을 위해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더 챙기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이 별 어려움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이 사람 하나 더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사람 하나 더 가족 하나 더가 되지는 않더군요. 서로 서로 관계



"자신 사랑해야 남도 사랑해요"

다. 예전에는 '돌'이라는 숫자만 충족하면 '생명의 관계'가 성립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곰곰히 더 생각해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더군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비유를 한번 들어서 말해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엄마, 이 '돌'은 지구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지요. 하지만 이 관계권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순종과 권위에 대상으로 '아버지'라는 두려움의 존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삶의 길'에서는 '셋'이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드라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의 그물 속에서 인간으로서 '살'한다 함은 무엇인가. 아마 '자기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치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권업한 이기주의가 아닌 '나'를 생명으로서, 하나의 '우주'라는 근본적인 자각을 한다는 것이요. 나의 우주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다른 생명 즉 다른 모든 이들의 코스모스를 업신여길까요...

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고귀하신 분들이 징그러운 벌레처럼 여기는 거리의 사람에게도 기쁨과 슬픔과 아픔의 추억이 있고 또한 추억은 거리의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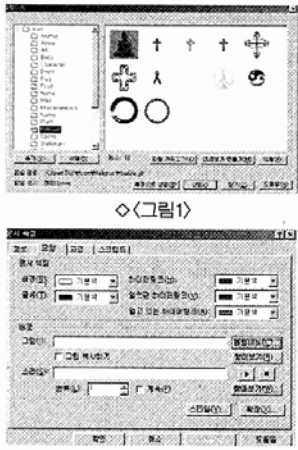
밥상 위에 올려질 숟가락 하나를 먹는 거리의 해결과 다른 가족들과 또 다른 추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을 억누른 현실을 규정하는 다양한 추억들과 화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다고 적다고도 할 수 있는 아침이 죽들이 스쳐간 자리에 아직도 낮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젠 똑똑히 알았습니다.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더 놓여진다는 것은 새로운 추억과 기존 추억이 돌간의 만남의 장이라는 것을... 오늘도 한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새로운 추억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낯선 서늘한 남기고 떠나가더군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가슴 깊이 울려옵니다. 숟가락 하나! 인드라망 속에서 관계적 생활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그 소박한 스승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클럽아트로 멋진 배경화면을...

홈페이지 만들기 ⑧

다양한 아이콘과 배경화면을 꾸밀 수 있는 클럽아트에 어떻게 사용할까. 그림이 들어갈 위치에 커서를 놓고 클럽아트 삽입 아이콘을 누른다. '클럽아트' 대화상자가 나오면 왼쪽의 아이콘 종교(religion) 항목을 열고 원하는 그림을 선택한다. 삽입을 누르면 커서가 있던 위치에 새 클럽아트 삽입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 왼쪽 창에 나타난 그림들 가운데서 고르고 삽입을 누르면 된다. <그림2>

배경화면에 색깔을 주기 위해서 문서의 편집화면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다. 단축키 뉴가 나오면 '문서속성'을 선택한다. '문서속성' 대화상자에서 '배경'의 목록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여러 가지 색 가운데 마음에 드는 색을 고른다. 다음 확인을 누른다. 내가 만드는 문서의 배경색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클럽아트로 배경을 바꾸려면 역시 '문서속성'을 눌러 배경이 아닌 그림의 클럽아트를 누른다. '클럽아트'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왼쪽 창의 '배경' '이미지'를 선택한다. 오

우리 모임에선

대구산악인회장 김장근씨



대구불교산악인회는 26일 창립 5주년 기념법회 및 3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새회장으로 취임한 김장근(사진)씨는 "올해는 녹색환경 감시단과 더불어 '포교단'을 구성하겠다"며 "불교 교리와 신행 수계법회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클릭! 새 홈페이지

-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www.bulkwang.org/grim.html)-대회 소개를 비롯해 올해 대회 안내, 역대 대회 보기, 역대 수상작 보기 등으로 꾸며져 있다.
- 박찬호의 불교세상 (http://my.dreamwiz.com/y2000pch)-한국 중국 인도불교의 이해 불교계에 대한 소개 오제 사미계 구족계 보살계 등
- 노래하는 부루나(http://members.tripod.co.kr/buluna)-2월22일 개설. 음성보시를 하는 불교봉사단체 노래하는 부루나의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한편 19일에는 삼천포 사랑도 육녀봉으로 3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053)255-3750

불교스카우트 운동법회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25일 다보빌딩 15층에서 중도가 운동법회를 봉행했다. 강술은 연재홍씨가 맡았다.

서귀포 거사님 '정도' 4집 내

서귀포정토거사님(회장 고용봉)은 회지 <정도> 4집을 발간했다. 이번 회지에는 정토거사님 활동 화보와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중단 대표 스님들의 법문 등이 담겨 있다. (064) 762-6875

- 사찰에 관한 명상(http://net-in.co.kr/blackstar)-당간지주, 일주문, 천왕문 범종각 법당 탑 등을 소개하고 각 지역별 사찰 소개.
- 석불카페(http://cafe.daum.net/seokbul)-3월19일 개설. 석불사 법우간 친목도모와 포교를 위한 홈.
- 대불러 & 이름으로(http://cafe.daum.net/kbuleader)-3월17일 개설. 대불러 전국 지부장 모임.
- 용인불교학생회(http://www.freechal.com/ybh5972)-3월17일 개설. 용인불교학생회 회원들의 만남의 장.

서북 황토 토종 오가피농장

"찬증의 오가피는 찬마차의 금속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 황토밭에서 10년이상 재배 무공해 오가피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한 오가피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 "오가피 알아봤더니 솔가피"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열,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황토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결코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 수협생, 고시준비생에게 탁월한 효과 보장.
- ※ 여성중앙 9월호 (P636) 다이어트 최고의 작품으로 소개. (경희대 육정수 박사)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추출액, 목욕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 0333)682-503, 8588, 682-4965 (농장)
- FAX : 0333)682-5034

전국영탑 대리점 모집

- 가족, 종중, 묘지의 혁신! 천안 영락사 영탑이 해결해 드립니다.
- 영탑기본형 1기에 유골 18기 봉안으로 묘지와 장례비가 경제적이고 사후관리가 편리하다. 문중, 종중, 탑30기 60기 90기 제작 설치도 합니다.
- 선산, 정원등 어느 곳이나 최저 3평이면 설치가 용이하다.
- 탑1기에 조상을 대대로 봉안하며 성묘나 제사 모시기가 편리하고 가족 화합이 절된다.
- 화장은 어떤경우에도 후손에게 영향이 없으나 시신을 잘못 매장하거나 이장하면 종교와는 상관없이 우환이 생기며 유골을 버리면 후손은 반드시 후회하게된다.



실용선안 등록번호	0172542호
의장등록번호	30-1999-0022081
탑기본형규격(1)	높이190cm, 넓이:100cm 세로100cm
유골함규격(원동형2)	높이 17cm, 지름:16cm
상석의 규격	가로 50cm, 세로65cm.

- 영탑 분양 및 주문 제작 판매 설치
 - 가족형, 종중형, 일반형, 종교형 기타 단체형
 - 전국 어디나 신속 제작 설치가능
- 전국 판매 대리점 모집
 - 전국 시, 군, 구 단위
 - 석재 가공 및 정묘 부대사업 부동산 소개업 점포 운영하시는 유경험자.
 -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고 성실한 인사
 - 희망지는 전화 또는 내사문의 요망
 - 폐사의 소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숙식은 1박2일 무료 제공
- ◆ 충남 천안시 임정면 시정리 51-35번지 Tel: (0417)584-6674~6 Fax: (0417)584-2335

천안영락사 영락영탑공원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 15회 동경국제식품시험연구소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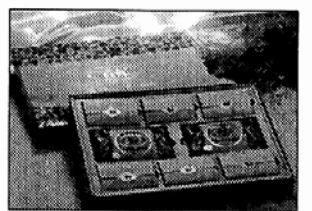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성분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체계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봅니다. 향비는 자연형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도움이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할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香妃



매달되는 증상에 (○) 마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월경이 지루하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위축이 있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땀이 많이 났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양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진 것 같다.
- 16 목이 메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기타 이상 증상은 물론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